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임성훈 나주시장

도민체전 성공개최 역량 집중



임성훈 나주시장은 “오는 4월 열리는 제50회 전남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나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을 한해 시정의 추진동력을 안과 밖에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일이 잘 이뤄진다는 ‘줄탁동시’에서 찾겠다”며 “시정과 시민, 시정과 의회, 시정 내부의 역량을 살려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희망나주’ 발

일자리 1만개 창출 진력

전을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장은 “지난해가 시민과 악 속을 하고 준비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그동안의 악속을 실천해서 성과를 기시화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무엇보다 오는 4월에 개최하는 전 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가 도약했듯이 나주 인의 기상과 가치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전남도민이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성공적인 체육대회 준비를 다짐했다.

제 50회 전남도민체전은 오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임원과 선수 등 6천여명이 참가해서 육상 외 17개 종목과

역도와 바둑 등 2개 시범종목을 치르게 된다.

나주시는 체육시설물과 공설운동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일상동체로 기초질서, 쾌적한 환경, 순民心이, 음식문화 개선, 문화체전 등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임 시장은 이어 “그동안의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혁신 도시 건설과 연관시켜 일자리 1만개 창출에 진력하며, 원도심 발전 방안을 비롯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초·중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여건 강화, 농업의 블루오션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점시책을 밝혔다.

또한 “기업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대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대책에 대한 실현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

리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시장은 “도심재생사업 공모를 계기로 수립한 원도심 발전방안과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 활용,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연계해서 영산강 고대문화와 현대 목문화를 간직한 문화브랜드를 창조, 문화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인구유입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교육기관이 필요한 만큼 초·중학교 교육에 역점을 기울여 나주에서도 글로벌 영재가 나을 수 있도록 기

글로벌 영재 양성 투자

초실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장은 또 “쌀농사에 편중된 지역농업이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베 대체작목과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임대농기계사업 활성화, 배수 출 확대 등 농업정책에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20년 뒤에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나주 농업의 미래를 확신했다.

임 시장은 “시민과 출향향우 모두 희망과 믿음,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서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희망나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종부취재본부=최승렬·정철현기자

여수시 일자리 5만개 만든다

민선5기 대책 발표… 고용률 63%까지 증대

여수시가 민선 5기내 일자리 5만개 창출에 나선다.

여수시는 오는 2014년까지 지역 고용률 62%까지 증대시키고 기업유치와 공장신·증설, 관광리조트특구 조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7682개(15.4%)와 사회적기업 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등 공공부문 4만2318개(84.6%)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계획을 포함해 민선 5기 임기종에 4개 분야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일

자리 공시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부문

에서는

월화,

평여,

두암,

중흥,

등 산

업단지

부지확장,

G5갈레克斯

와 10여

개사의

국산단내

공장신·증설 및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지원을

통한

기업투자유치,

기업맞춤형

인센티

, 청년

뉴스타트,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시

와 음·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일자

리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빈 일자리 고용알선 등 인력수급 미スマ치 해소, 산단 맞춤형 산업인력양성(테크니션 스쿨), 박람회장 이주민 직업훈련 등 지역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경쟁력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설, 관광, 보건·의료, 사회복지, 일반행정 등 7개 분야 110개 사업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사업·박람회장 및 엑스포 타운 운영 종사자,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역고용률이 낮은 근본원인이 여수산단이 장치산업으로 신규고용 창출이 미약하고 SOC와 관광인프라 부족에 있다”며 “앞으로 일기 4년동안 일자리창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

문의(061-690-8205)

/종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시는 일자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주진단을 구성·운영하며 노사민정협의회·학계·직업훈련기관들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지역민 고용협력, 시민 공감화산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역고용률이 낮은 근본원인이 여수산단이 장치산업으로 신규고용 창출이 미약하고 SOC와 관광인프라 부족에 있다”며 “앞으로 일기 4년동안 일자리창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녹색멸치·새고

♥ 이웃에 사랑을 ♥

‘남양 하얀우유봉사단’ 소외계층에 생필품



남양유업 나주공장이 지난해 40여 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친다.

최근에는 20여 가구의 불우한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유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우유 릴레이’ 행사를 펼쳤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지난 2008년 공장 준공과 함께 전사원이 함께한 ‘남양 하얀우유봉사단’(단장 백원덕)을 결성, 2년이 넘도록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우유와 생필품을 전달하

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20여 가구의 불우한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유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우유 릴레이’ 행사를 펼쳤다.

나주공장 정의국 공장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취재본부=최승렬·정철현기자

우산파출소, 사회적 약자위한 ‘111 사랑나눔’



광주 광산경찰서 우산파출소(소장 김태)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11 사랑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산파출소 직원과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 등 8세대를 방문해 쌀과 리본 등 4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집 주변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독거노인 8명은 대부분 70대로 가족이 없거나 더러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다 거동이 불편해 노인돌보미의 도움없이는 외

부 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 우산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랑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취재본부=김원태기자 wtkee@



신안군 ‘보복인사’ 후유증 날로 확산

직장협 사퇴 주장에 군의원은 고발 맞불

신안군 직장협의회가 대규모 인사조치를 비판한 군의원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를 군의원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인사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직장협의회는 최근 군청 공무원 내부망에 올린 성명을 통해 “군정발전과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으로서 자격이 미달된 박삼성 의원은 공개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민들이 집행부의 군수 독선을 감사하고 비판하고 주민들이 뽑아준 군의원을 근거로 없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신상한 의회상 평조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에 해당한 책임자 전원을 3일 사법기관에 고발해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신안군의회 제200회 신안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안군이 단행한 공무원인사는 정치보복성 인사며 노조 죽이기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기기자 wncho@

금당 공인중개사

■ 김정아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 접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만 원 투자기자 매수율을 매도 3억8천
- 회정동 소방서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시지가 매도 9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천 매도 2억3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 코너 상업지 589평 공정은 637평 공시가 27억3천 매도 23억5천
- 주월동 대지634평 건평2059평 요양시설등 적합 39억
- 회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2평 173대 출입 39평 매도 6억
- 월암동 건물 대지 108 383평 건평 11억 8천 대출 2억 5천천세 1천 7억7천
- 광산구 신촌동 그린밸트 산과 밭 3470평 공시지가 1억8천 매도 1억5백
- 월성동 주택 대지47 3층 공시지가 5140만원 매도4300만원
- 회정동 주택 대지47 3층 45평 공시지가 4억9천 매도 4억5천
- 금남로5가 여관 대지11 건평300 평 26평 공시지가 4억9천 매도 4억5천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하기마는 대지 1054평 건평10층 2149평 공정 57억6천만원 40억
- 경북 상주시 산 42359평 공시지가 3억3천 매도 7억

■ 매도·교환

- 남구 신정동 영산강집한곳 집증지 840평 남향. 전원생활. 시찰적 학. 통호인주택 적합 3억5천만원
- 두암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회정동 42평 1차선 도로 주택 480평 매도 16억
- 북구 충현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촌동 2층 주택지 738평. 교회, 원룸, 생활주택 적합 13억5천
- 회정동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이집, 1900만원
- 절. 회정동 도곡면 평801평, 건평 63평. 실제는 100평. 대출9천만원
- 진원주택지. 회정 남면 사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 디양과 순층간 국도점. 1465평 기관, 공장, 주유소등 적합 393천
- 진원주택지. 회정 남면 사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 디양과 순층간 국도점. 1465평 기관, 공장, 주유소등 적합 393천
- 진원주택지. 회정 남면 사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 디양과 순층간 국도점. 1465평 기관, 공장, 주유소등 적합 393천
- 진원주택지. 회정 남면 사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 디양과 순층간 국도점. 1465평 기관, 공장, 주유소등 적합 393천
- 진원주택지. 회정 남면 사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